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아크로신®

아세클로페낙

전문의약품

분류번호 : 114

[원료약물 및 그 분량] 이 약 1정 증

- 유효성분: 아세클로페낙(BP) 100mg
- 기타첨가제: 유당수화물, 미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전분글리콜산나트륨,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오파드라이Q3B28796

[성상] 환색의 원형 필름코팅 정제

[효능·효과]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건강상악골의 관절증의 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퉁통, 좌골통, 바인저증 류마티즘으로 인한 통증

[용법·용량]

- 성인 아세클로페낙으로서 1회 100mg을 12시간마다 1일 2회 복용한다.

- 간장에 환자 초기 용량으로 1일 100mg를 투여한다.

이 약은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복용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강한다.

이 약의 신혈관에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유효 용량으로 최단 기간 동안 투여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 1)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 2) 심혈관에 위험 및 노화관에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뇨출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율혈성 심부전[New York Heart Association(NYHA) I]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험 인자(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출혈)를 지닌 환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투여량과 투여기간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단기간동안 일일 최저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 환자의 증상 완화에 대한 요구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는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을 밝힌다는 경우 취할 차례에 대처하여 사례에 알고 있어야 한다. 노화관 출혈 병력을 기진 환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고 철저한 의료 감독 하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 3) 위장관에 위험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 또는 장관의 출혈, 채양 및 천공을 포함한 중대한 위장관에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기간 동안에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는 중대한 위장관에 이상반응의 위험이 더 큼 수 있다.
- 4)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대한 위장관에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으나 단기 투여 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5)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위장관에 채양 또는 출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증증의 위장관에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적극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증증의 위장관에 이상반응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투여 중단하는 경우 치료법이 될 수 있다. 고위험군의 환자에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관련 없는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환자(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 활동성 소화성궤양/출혈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2)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 또는 같은 계열의 일부 약물(디클로페낙)에過민반응이 있는 환자
- 3)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치명적인 증증의 아나필락시스 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 본 의약품은 엄격한 물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변형·변색·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입한 약국 및 도매상을 통해 교환하여 드립니다.

• 첨부문서 작성·개정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www.skchemicals.com/ls)나 제품상담전용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의약품은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를 주의깊게 읽고, 첨부문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의약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medrug.mfds.go.kr)'을 참조하십시오.

•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하여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0. 2. 12. 작성
※2019. 6. 7. 개정
(Ver.008)



Life Science Biz.

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복상길 28

자세한 문의는 제품상담 전용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상담 전용전화(무료): 080-021-3131

- 9) 간장: 매우 드물게 간염, 황달, AST, ALT, ALP의 상승
- 10) 피부: 때때로 가려움을, 발진, 발적, 피부염, 두드러기, 드물게 얼굴부종, 매우 드물게 자색반, 수포성피부염, 피부점막인증증후군(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증(헤리엘증후군)을 포함하는 수포성 반응이 나타난다. 광민(광민증), 탈모
- 11) 신장: 신부전, 신증후군
- 12) 국부증상: 부종, 피로, 다른경련
- 13) 기타: 자주 간호소상증, 때때로 혈증 요소 또는 크레아티닌 상승, 체중증가, 애뇨현상의 증가, 모근수액(액체)으로 진단홍빈부루스(SLE) 및 혼합형 혈관병증(MCTD)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 14)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의 분석평가에 따라 다음의 이상반응을 추가한다. •피부·혈관 부종, •기타: 밀초 부종, 눈 주위 부종
- 5. 일반적 주의**
- 1)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 및 다른 차례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록과 일치하도록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으로 투여한다.
 - 2) 위장관계 이상반응: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케워 성 질환 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시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화성 궐약 질환 및/또는 위장관 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 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시 위장관 출혈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장관계 출혈증 증상시키는 다른 위장관 질환으로는 구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항응고제 복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장기 사용 일코로 섭취, 고령, 하악연 건강증후 등이 있다. 치명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자발적 보고의 대부분은 고령자 및 학자연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3) 고혈압: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에 유해사례의 발생률이 증가될 수도 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 또는 루프레 이뇨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시 이들 오류에 대한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고혈압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초기와 투여 기간 중간에 혈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 4) 음울증/불안 및 부종: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체액 저류 및 부종이 치료되었거나. 이 약은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 시 신장유두고사나 기타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혈류를 유지하는데 프로스타글란дин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심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간부전 환자, 이뇨제나 ACE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고령자 등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은 중단하면 대부분 차운로 회복된다.
 - 6) 진행된 신질환: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서 이 약 사용에 대한 통제된 일상 생활은 신시사된 바 없다. 따라서, 진행된 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의 투여를 개시해야 한다는 환자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7)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투여로 긴기능 수치의 상승이나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사수치는 치료가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일시적인 수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혈액으로 빙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장기 투여에 의해 빙합의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모글로빈 또는 헤마토크리트 검사를 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혈소판 응집을 악화시켜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스피린과 달리 이 약의 혈소판 기능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속기간이 걸리며 가역적이다. 응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혈장고지름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혈소판 기능 변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 8)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i)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전혈구 검사(CBC) 및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간질환 또는 신질환과 관련된 일상 증상이나 전신적인 질환에 호산구증가증, 발진)이 발생되거나 비정상적인 긴기능 검사 또는 신기능 검사 결과가 지속되고나 악화되거나,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 (ii) 암요법이 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 9)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i) 급성염증, 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 (ii) 월경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 투여에는 피한다.
 - (iii) 원인요법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한다.
 - 10)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은 약물에 노출된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증상은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비це 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거나 또는 잠자적으로 치명적인 증상의 기관지 경련을 나타내는 천식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1) 피부반응: 이 약은 박테리오네임, 피부점막인증증후군(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증(헤리엘증후군) 같은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 중대한 이상반응은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환자는 중대한 피부 발진 증상 및 증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피부 발진 또는 다른 과민반응의 최초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때 약을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 12) 천식 환자 중 일부는 아스피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법의 수 있는 증상의 기관지경련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 아스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의 기관지경련을 포함하는 교차반응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약은 이러한 아스피린 민감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천식 환자에게는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한다.
 - 13)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대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길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 14) 이 약은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대체하거나 코르티코이드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될 수 없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길작스러운 투여 중단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반응성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온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서히 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 15) 이 약의 치료학적 특성상 염증의 다른 증상과 징후를 불현상화하여 통증 및 비감염성 조건에서 감염성 합병증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 16) 저지러움 혹은 기타 중추신경계의 장애(昡증, 피로, 시각이상)를 느끼는

환자는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경을 피한다.

- 17) 여성의 임신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중인 여성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에서 일시적인 불임이 보고되었다. 임신이 어렵거나 불임치료를 하고 있는 여성은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8) 소염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에 유의한다

6. 상호작용

- 1) 환자가 다른 약물 특히 디거신, 항응고제, 경구용 당뇨병용제 또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2)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의 항고혈압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약과 ACE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II 수용체 길항제를 복용투여하는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 아스피린: 아스피린과의 병용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증반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관된 증거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과 아스피린의 병용에 의해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이뇨제

- 1) 임상시험 및 시판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дин 합성 억제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 무로세미드 및 티아지드계 이뇨제의 나트륨뇨제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약들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투여하는 동안 신부전 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2) 킴보노이드 및 복용시 혈청중 킴볼농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헐증 칼륨농도를 관찰해야 한다. 벤드로플루자이드와 복용시 혈암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전 바 없으나, 다른 이뇨제와의 상호작용은 제거될 수 없다.
- 3) 리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дин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 4) 메토트렉세이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안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 (15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 5) 리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신장에서의 프로스타글란дин 합성 억제에 의해 혈청 리튬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리튬의 신청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리튬의 병용 투여 시 리튬의 독성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 6) 메토트렉세이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의 병용투여로 신세뇨관에서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메토트렉세이트의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항암안법으로 사용하는 고용량 (15mg/주 이상)의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병용하지 않으며, 저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시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
- 7) 쿠마린계 항응고제와/or파인 등: 위장관 출혈에 대하여 와르파인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환자는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중증의 위장관계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 8)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선택적 COX-2억제제 포함)와 병용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 9) 이 약은 CYP2C9에 의해 대사되므로 페니토인, 시메티딘, 미코나졸, 살파파니졸, 아미도나민, 블루타민드, 페닐부탄조과 약동학적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
- 10) 강심제동작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사구체 어과율을 감소시키고 배당체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
- 11) 미페프리스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후 8~12일 동안 투여해서는 안 된다.
- 12) 쿠마린계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 시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통물실험 데이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13) 혈소판제거 및 혈액적 세로토닌 차출증 억제제(SERT): 이 약과 병용 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 14) 시클로스포린 및 키클로로우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로 신도식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15) 지도부단: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투여 시 혈액학적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H4V(율부경 환자에게 지도부단과 이부프로펜을 병용 투여 했을 경우 혈장질증과 혈栓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다.
- 16) 당뇨병용제: 디클로페낙은 경구 혈당강하제와 복용 시 경구 혈당강하제와의 일상적 혈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결과가 있었으나, 이 약의 치료중에 저혈당과 고혈당 효과가 드물게 보고되었으므로, 저혈당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 17)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 약과 병용 시 위장관 케워 또는 출혈의 위험 이 증가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1) 이 약을 입여에도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다.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임신 밀기기에 이 약을 투여 시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나 임신 초기 및 중기의 임부에게 용량 및 사용기간을 최소화함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임신말기(마지막 3분기)의 입여제에는 투여 하지 않는다.
- 2)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대한 실험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난생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 3)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암이 사는 유모유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약물들이 모유 중으로 이동될 뿐만 아니라 이동할 경우 영아에서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수유부에 대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 소아에 대해서는 경구적 투여로는 신체적 증상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 고령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한 이상반응을 특히, 위장관 출혈과 천공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 시 주의한다.

10. 과량투여 시의 처리

- 과량복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실수로 과량 복용 시에는 관찰되는 증상에 따라 저하하도록 해야 하며, 위장관 출혈, 호흡저하, 경련 등에 대처하도록 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2) 다른 약과 함께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유지 면에서 바람직 않으므로 이를 주의한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C)보관

【사용기한】 직접용기에 별도표기

【포장단위】 30정/병, 300정/병